



〈예수님과 12제자들〉,
5세기, 모자이크(부분),
알베나 세레당, 이탈리아

성화 해설

작은 세레당을 장식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여러 상징을 통하여 표현되어 있다.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세 개의 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인 키로(XP), 알파와 오메가(AW)가 표현되어 있다. 그 주변에는 비둘기 형상으로 표현된 12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자세로 묘사되어 있다. 배경의 푸른색은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죽음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입당송 시편 43(42),1-2 참조

제1독서 예레 31,31-34

화답송 시편 51(50),3-4,12-13,14-15(◎12ㄱ)

◎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소서.

- 주 하느님, 주님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
-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

쳐,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리이다. ◎

제2독서 히브 5,7-9

복음환호송 요한 12,26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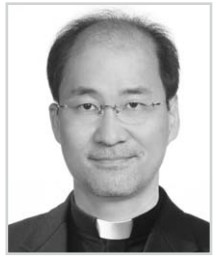
-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음 요한 12,20-33

영성체송 요한 11,26

-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영광



이규성 토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요한 12, 28).

오늘 복음의 한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받으시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한 내용을 위와 같이 듣는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생각에 잠기게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게 한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못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아마도 우리 중의 대부분이 이러한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쏟아왔다는 것이 더 솔직한 대답일지 모르겠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그리고 신앙을 위하여 산다고 주장해 왔어도 어떨 때는 실상 교묘하게 신앙을 핑계로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의욕도 능력도 턱없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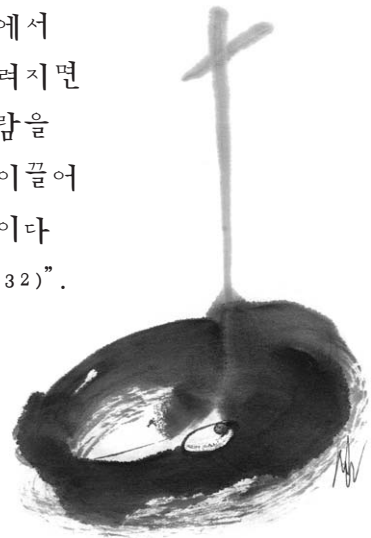
하느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또 인간들 다수 또는 모든 이들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이 중요함을 적지 않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영광을 빼앗기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치욕과 부끄러운 일로 남는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언제나 1등만을 추구하는 것만이 삶의 의미요 보람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승자가 되어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쪽만이 모든 영광을 독점하는 것은 많은 문제의 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는 것 같다. 1등만을 추구할 때, 금메달만을 추구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못난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방식의 이면이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느님에게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고 영광을 드리려는 목적을 설정한다면, 즉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봉사로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봉사하고 영광을 드리려고 할 때 이웃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그 봉사의 대상으로 드러나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 인간만의 영광을 추구할 경우에는 그것은 한없이 추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 그리고 그밖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기 자신을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셨다. 최근 선종하신 추기경님께서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게 한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당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요한 12, 32)”.



믿음없는 강아지



안미경 데레사 |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연구원

우리 집에는 열세 살이 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워낙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니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할머니가 된 강아지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 우리네 식구는 모두 애처로워하며 강아지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준다. 그중에도 나를 엄마라 생각하는지 제일 잘 따르는데,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좀 쉬기라도 할 양이면 계속 올려달라고 내게 성화를 부린다.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일이 생기면 별일 아니라도 뛰어 내려갔다가는 몇 번이고 올려달라고 보채는 것이다. 다리에 힘이 없어 뛰어오르지 못하니 처음 몇 번은 그냥 올려주는데 횡수를 거듭하다 보면 은근히 짜증이 날 때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손으로 잡아 올려줄 때 그냥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온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리 떨어뜨릴까봐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판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버둥거리는 것이다. “가만 좀 있어라!” 소리도 쳐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강아지는 왜 나를 못 믿는 것일까?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고 다치게 한 적도 없건만 자기의 불안을 이기지 못해 버둥거림으로써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기도 한다.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닐까.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하느님의 부재를 탓하며 원망하게 된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싸여 있을 때면 하느님의 이끄심에 맡기기보다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힘을 쓰며 버둥대는데 이야말로 자신을 더한 위험으로 몰아넣게도 되는 것이다.

이제 50줄을 넘어서면서, 돌아보면 참말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을 감히 스스로 해본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가족들이 아팠을 때, 또 내가 아팠을 때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얼마나 애를 쓰며 극복하고자 노력했는가. 아무에게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온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마음 편히 살만도 한데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우리 부부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아이들은 잘 풀려야 할 텐데, 며느리는 잘 들어와야 할 텐데 등 끝도 한도 없다. 정말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싶다. 도저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하는 말이 나오질 않는다. 내 몸의 힘을 다 빼고 아버지의 이끄심에 맡기기 정말 힘들다. 내 몸의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편안히 들어 올려주실 텐데,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버둥대는 꼴이 우리 집 강아지랑 똑같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강아지와 나 자신을 보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진심으로 청해본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3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재한다...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2272항>.

아기의 어머니와 의사 등 낙태를 행한 사람뿐 아니라 낙태를 권하고 도와준 사람들 역시 교회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기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낙태죄에 협력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파문의 제재, 즉 성사참여를 비롯해서 교회와의 친교와 권리에서 배제되는 벌을 받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의사와 간호사들의 낙태 권유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낙태를 조장하는 보건행정 담당자, 낙태법을 승인한 입법자,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한 사람들, 낙태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제기구, 재단, 단체들도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59항 참조).

“서로 사랑하세요”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자신의 모두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신비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자, 특히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이 땅에 드러내신 당신의 사랑(Caritas)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깊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순절입니다. 그것은 존경하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선종과 장례를 마치며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고자 노력하시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 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예수님,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루카 4,18)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었던 분이셨습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신 후 4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명동성당으로 모여, 추기경님의 선종을 애도하면서 5시간이 넘도록 조문 행렬을 이룬 모습을 기억해봅니다. 그토록 길었던 조문 행렬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 교회에 향하여 추기경님께서 당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에 보여준 그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그 요청에 응해야 함을 더욱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 모상으로 창조하시어 당신의 참 도구로 삼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고 말씀하신 이 땅에, 그러나 죄로 물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그 과업을 당신의 모상인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Caritas)을



이 땅에 드러내는 참된 도구이며, 주님께서 손수 십자가의 신비로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참된 도구로써,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담아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서는 1976년 당시 서울대교구장으로 계시면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Seoul)을 설립하셨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여러 분야에 사회복지 사업을 펼쳐나가며 소속된 259개 시설, 기관, 단체를 통하여 진정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순시기에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단식과 속죄 행위로 절약하며 모은 「사순저금통」과 「주님 수난 성지주일 2차 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이웃에게 희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저금통」과 「주님 수난 성지주일 2차 헌금」은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당신 삶으로 보여주신 하느님께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 되어 함께 하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사랑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Seoul)는 항상 함께 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이 되시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Seoul)

가리따스(Carita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애덕’이라는 그리스어 아가페(Agape)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실현되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이 땅에 실천하는 교회의 기구입니다. 현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Seoul)는 전문적인 복지활동을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 사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소식

4월5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로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행한 회생,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것을 이 날 2차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4월 모임

학년	때	곳	문의
중1	4월5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중2	4월19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010-9954-2123
중3	4월5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010-2577-2123
고1	4월5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61-2123
고2	4월19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72-2123
고3	4월19일(일) 9시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010-8803-5695
일반	4월4일(토) 14시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010-8803-5695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개포동성당 사무장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컴퓨터 조작 및 회계 업무 가능한 남교우 / 4월7일(화)까지 우편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문의: 574-4744(제출서류 반환 안 됨, 면접은 개별통보)

서울대교구 길동성당 관리직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24시간 교대근무(가스 안전관리·방화관리·시설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 / 4월30일(목)까지 접수
- 문의: 488-3561(제출서류 반환 안 됨, 면접은 개별통보)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3월30일 이종순 요셉 신부(46세) 1935년, 용산
- 4월3일 양기섭 베드로 신부(77세) 1982년, 배론

주교회의 2009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가 3월16일(월)~19일(목)에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1.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청년 교리서」(시안) 총 7권 가운데 제3권 「순례의 길을 걷는 하느님의 백성」의 출판을 승인.
2. 주교회의 정기총회를 마치며 '국민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
3. 주교단과 수도회가 공동 관심사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재 연 2회 열리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와 남녀 수도회장상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격상시키고 그 명칭을 '주교와 수도자 협의회'로 결정.
4.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31 운동본부의 정식 명칭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로 변경.
5. 2012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50차 세계성체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로 권혁주 주교를 선출.
6. 서울대교구 이기락 타대오 신부를 주교회의 사무처장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임명.
7.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2010 가톨릭 교육자 대회'를 2010년 5월16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과 동성고등학교에서 개최할 예정.

교구청 알림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때: 4월3일(금) 오후 2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27-2123, 4

향심기도(월피정)

- 대상: 누구나 /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상지 피정의 집 / www.hyangsim.com
- 문의: 010-8674-1105 사목국 향심기도회

직장인	4월5일(일) 9시30분-16시	회비:
일반인	4월6일(월) 9시30분-16시	1만5천원

참생명학교 2009 상반기 교육안내

- 주제: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 대상: 누구나
- 강제: 생명과학시대 생명에 대한 성찰(1주), 유전자 조작과 변형의 문제(2주), 줄기세포와 생명복제 문제(3주), 생명나눔과 생명문화의 길(4주) / 홈페이지: www.forlife.or.kr
- 문의: 727-2350 생명위원회(회비: 1만원)

동서울	4월15일-5월6일 매주(수) 14시-16시, 광장동성당
중서울	5월8일-29일 매주(금) 14시-16시, 혜화동성당

2009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때, 곳: 4월22일(수) 오전 10시30분, 파천 서울랜드 / 기념미사 집전: 김운회 주교
- 문의: 727-224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남자 수도회	4. 5. 14시	인천 가르멜 수도원	010-3169-7416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4. 5. 14시	평창동 수련소	011-9852-9817
로사리오성모의도미니코수녀회	4. 5. 14시	성북동 한국 분원	011-1731-7123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4. 5. 14시	성북동 수녀원	011-9799-8790
서울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회	4. 5. 14시	돈암동 본원	010-6259-6364
성령 선교 수녀회	4. 5. 14시-17시	명륜동 본원	010-5730-6322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바오로딸 수도회	4. 4. 15시	미아리 본원	011-232-1611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4. 4. 14시	뚝섬 수도원	010-9204-126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4. 5. 14시-17시	정릉본원(샘물모임)	016-332-2885
피터미성모 프란치스코수녀회	4. 5. 14시	수지본원	011-9176-1212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4. 5. 14시-17시	보문동 수녀원	011-9319-1690
한국 외방 선교회	4. 5. 13시	한국 외방 선교회본원	010-4555-7526

문화마당



101가지 고해성사 이야기

파트리시아 프락터 지음 | 장말희 옮김 | 성바오로 | 288쪽 | 1만 원
여러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해성사 이야기와 그에 따른 지침을 담은 책으로, 고해성사를 봄으로써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주목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오빠

김인숙 지음 | 생활성서 | 184쪽 | 9천5백 원
모든 것이 궁핍하고 불편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손길이 지켜 주고 있었던 것 같은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가슴 뭉클하고 재미있게 담았다. 힘겨울수록 더 가까이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는 책이다.



영적 일기와 함께하는 내 하루의 성경

요나 아비브 지음 | 오영민 옮김 | 바오로딸 | 112쪽(부록 120쪽) | 8천 원
성경을 공부 또는 탐구해야 하는 어려운 대상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많다. 이들에게 단순하며 실용적·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과 영적 일기 작성법을 제시하여 부담감 없이 말씀을 대하고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어서가거라 - 성서가족을 위한 탈출기 해설서

성서와함께 편집부 편저 | 성서와함께 | 400쪽 | 1만3천 원
1992년 처음 나온 탈출기 해설서가 새 '성경'에 따라 본문을 바꾸면서 새로운 내용을 담아 개정판을 펴냈다. 각 단락 끝에 목상 난을 마련해 성경 본문을 내 삶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목상하고 살펴보도록 도와준다. / 구입문의: 822-0125



가르멜의 산길 학습서

토머스 M. 라이드 지음 | 서한규 옮김 | 계세마니 | 152쪽 | 1만1천 원 | 구입문의: 985-1379
이 책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저서에 대한 일종의 학습서이다. 성인의 주요 저서인 '가르멜의 산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성인의 가르침을 더 생생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준다.



신학대전 제13권

성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 김울 옮김 | 바오로딸 | 508쪽 | 3만8천 원
인류의 공통학자이자 대성, 대학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집약된 책이다. 성 토마스 사상의 미래지향성과 영구성을 알아보고 새로운 학문적 자양의 원천을 제공한다.

'쌩 마르크 합창단' 내한 공연

· 입장권: R석 2만 원, S석 1만 원 | 예매 및 문의: 983-2274



전 세계 감동의 화제작 영화 '코리스'의 주역인 쌩 마르크 합창단이 4월20일(월) 오후 7시30분, 미아동성당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교회음악에서부터 영화음악까지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영혼을 울리는 완벽한 하모니의 이 합창단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성희와 PBC 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우정 출연한다. 본 공연 수익금은 불우 청소년 돕기에 사용된다.

연극열전2 '민들레 바람되어'

· 입장권: 전석 3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766-6007
· 공연시간: 화·목·금 20시 / 수 16시·20시 / 주말·공휴일 15시·18시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가 4월30일(목)까지 PMC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한다. 평범한 남자의 일생을 통한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관한 내용으로 이 시대 부부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다.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정웅인, 조재현, 안내상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3인 3색 열연을 펼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창작뮤지컬 '결혼'

· 입장권: 전석 3만 원 / 예매 및 문의: 319-8020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6시30분·19시30분 / 일 15시·18시



가진 것 없는 남자가 돈이 많은 것처럼 꾸며 여자에게 청혼하지만, 사기행각이 드러나 빈털터리가 된다. 남자는 삶과 결혼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진심을 안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인다. 관객의 참여가 재미를 더하는 뮤지컬로 4월19일(일)까지 대학로 두레홀 1관에서, 5월6일(수)~6월18일(목)에 두레홀 4관에서 있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4월19일까지 40%, 5월6일부터 30% 할인(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선교지 '안녕하세요? 천주교회로 초대합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편저 | 40쪽 | 3백 원 | 구입문의: 727-2032, 3



비신자들을 위한 선교책자로 종교와 그리스도교, 예수, 성모마리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부터 성경, 성사, 십계명 등 천주교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기도문과 천주교의 역사, 서울대교구 성당 주소록도 함께 실려 있다. 본당이나 단체에서 선교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표지를 각 본당 사진으로 교체해서 제작할 수 있다(추가비용 발생함).